

농촌진흥청 개발 흑돼지 '우리흑돈' 수요 증가·현장 보급 확대

-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종돈장, 인공수정센터, 농가에 300마리 순차 보급
- 올해 1차 보급 수요, 지난해보다 약 60% 증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흑돼지 품종 '우리흑돈'을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민간종돈장(씨돼지 농장)*, 돼지인공수정센터(AI 센터)**, 일반 양돈 농가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 * 혈통 관리·능력 검정을 통해 선발한 씨돼지를 분양하는 농가
- ** 씨수돼지를 사육해 인공수정용 돼지 정액을 생산해 판매하는 곳

국립축산과학원은 보유 씨돼지 능력 검정과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우수 개체를 선발했다. 올해 보급 규모는 총 300마리이며, 6월부터 187마리를 1차 보급하고 11월부터 113마리를 2차 보급할 계획이다.


1차 보급 규모는 지난해 1차 보급(117마리)보다 약 60% 늘었다. 올해 전체 보급 규모도 국립축산과학원 직접 보급 기준으로 최근 가장 커 '우리흑돈'에 대한 현장 관심과 활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흑돈'은 우리나라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과 두록의 생산성을 결합해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국내 유일의 개량 재래종이며, 2024년 토종 가축 인정 기준 개정에 따라 토종돼지로 인정받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1,771마리의 씨돼지를 보급했다. '우리흑돈'은 지난해부터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면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김시동 과장은 “'우리흑돈'에 대한 농가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고, 소비자 인지도도 높아가고 있다.”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흑돼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우리흑돈 소개 및 보급 현황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1-580-3440)
		담당자	연구사	백수현 (041-580-3443)
				

□ **‘우리흑돈’ 소개**

- 재래돼지 ‘축진참돈’ × 개량종 ‘축진듀록’ 교배(2015년 개발)
- 국내 유일 개량 재래종 흑돼지
- 재래돼지 육질·풍미 유지, 생산성 개선
 - 근내지방 함량 4.3%(상업용 돼지 대비 1.3%p↑)
 - 산자수 8~10마리(재래돼지 6~8마리)
 - 사육 기간 180~190일(재래돼지 대비 40일 이상 단축)
- 2024년 토종돼지 인정
- 2025년 덕유농장, 개량 재래종 사육 농가 최초 토종돼지 인정서 획득



□ **보급 현황**

년도	농가 수	보급 마릿수			보급
		암	수	합계	
2016	3	52	7	59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2017	5	77	27	104	
2018	3	59	13	72	
2020	24	299	47	346	
2021	10	207	11	218	민간 종돈장
2022	17	200	50	250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2023	13	225	29	254	
2024	17	217	33	250	
2025	17	175	43	218	
합계	109	1,511	260	1,771	